



## 뽀글머리 장규직으로 인기몰이 배우 오지호

한심한 스타일, 말끔한 슈트 차림새로 대표되던 오지호는 어느 때부터가 시퍼렇고 후줄근한 트레이닝 차림의 코믹한 캐릭터로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이번엔 유치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역할로 인기를 독차지했다.

글 김겨울(스포츠조선 기자) 사진 스포츠 조선, KBS

2009년 <내조의 여왕>부터 시작된 흥행 기운은 2010년 <추노>, 2012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013년 <직장의 신>까지 거침없이 하는 족족 대박이다. 이 같은 칭찬에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겸손한 답변이 돌아왔다. <직장의 신> 장규직의 뽀글머리가 아직 풀리지 않은 오지호를 만났다.

### 종방했지만 아직도 장규직

오지호는 이번 드라마에서 일명 ‘초딩멘탈’로 불리는 유치한 대기업 마케팅 영업부장 역을 맡아 열연했다. 사사건건 계약

직들에게 비수를 꽂는 모습 ‘갑’이다. ‘갑’ 장규직과 ‘슈퍼 갑’ 계약직 미스김의 대결과 러브 라인은 이 드라마를 이끄는 주 축이었다.

“하하. 악의 축이었죠. ‘갑’으로서 연기했지만 사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직장인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회사를 대변해서 ‘갑’의 역할을 맡았지만, 사실은 평범한 직장인 중에 한 명이죠.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람일 뿐이란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곤 “요즘 자꾸 장규직 역에 몰입해서 장규직처럼 행동하

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라며 웃는다. 사실 오지호와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다면 장규직 역의 오지호는 무척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늘 한결같이 미소를 짓고, 촬영장 스태프들을 꼼꼼하게 챙길 줄 아는 매너남이기 때문이다. 평소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답게 한국 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서 시상한 ‘베스트 커플’상도 수상했다. ‘베스트 커플’상은 10년 넘게 오랫동안 계약 기간을 유지했던 소속사와 연예인에게 준 상이다. 오지호는 소속사 헤븐리스타콘텐츠와 무려 15년 동안 관계를 지속, 최장수 계약 기간을 지속해 화제를 모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며 상처를 주고받는 소속사와 연예인의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오지호의 경우는 눈여겨 볼만하다.

**야구와 골프, 웨이트로 몸 관리**  
 “〈직장의 신〉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찍는 촬영이 많았어요. 많은 배우들이 함께 모여서 촬영하는 경우가 잦다 보니 그만큼 돈독해지더라고요. 마지막 촬영할 때에는 그만큼 힘이 들었어요. 새삼 인간관계에 대해 돌아본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동료, 내 얼굴을 비춰주고, 스케줄을 잡아주고, 연기를 함께 하고, 이런 수많은 동료들이 없다면 배우 오지호도 없지 않을까요.”  
 이처럼 사람 좋아하는 오지호는 건강 관리도 함께하는 운동을 통해 한다. KBS 예능 프로



그램 ‘천하무적 야구단’에서 연예인 야구단 에이스로 활약했던 그는 최근 골프단 ‘아이언맨’도 창단했다. 마음이 맞는 이들이 함께 운동하면서 골프 꿈나무를 지원하는 좋은 일도 하기 위해서다. 그의 절친으로 알려진 김성수, 조연우, 송중호, DJ DOC 한정수, 김영준 등이 뭉쳤다. “골프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골퍼죠. 한두 번 해보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연기할 때 집중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온몸을 다 사용하다 보니 저절로 운동도 돼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지호의 골프 예찬이 줄을 이었다. 그는 골프를 하지 않을 때는 런닝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며 몸 관리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직장의 신〉의 촬영



때문에 골프 실력이 떨어졌다고. “안 그래도 새내기 골퍼라 실력이 없는데, 드라마 촬영하느라 실력을 못 키웠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그러면서도 당장은 장규직을 헤어내기 힘들 것이라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배우로서 각오와 계획을 물었다. “〈직장의 신〉으로 또 한 번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사랑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려요. 앞으로 또 어떤 역할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든 사랑 받을 수 있는 오지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크린이든 브라운관이든 가리지 않고 기회가 되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